

#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에 게재된 인문지리학 논문의 문헌 인용빈도 분석

韓柱成\*

## Analysis of Citation Count based on the Papers in Human Geography of *Journal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Geography)*

Ju-Seong Han\*

**요약 :** 본 연구는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에 게재된 논문과 그 말미의 참고문헌을 자료로 인문지리학 분야의 논문별·저자별 인용빈도를 다차원척도법과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문지리학 연구의 접근방법론상에 공통점이 적어 연구자의 지적(知的) 친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적 네트워크는 강하게 나타나는 그룹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지적 친밀성과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기 위해 우선 각 연구자는 연구 분야와 주제를 다양화하기 보다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완성도 높은 연구물을 축적하여 인용빈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한편 석·박사학위논문은 학회지와 달리 공식적인 출판물이 아닌 경우 인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으로 제도적으로 이를 지양해야 할 점이다.

**주요어 :** 다차원 척도법, 사회 네트워크 분석, 인용문헌, 인문지리학,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citation count of papers and authors in the field of human geography through the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with the papers and their referenc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Geograph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Group formation of common approaches in intelligent network has not formed by cited literature in the field of human geography of a journal representing Korea. Then, each researcher should study consistently on a subject to form a school rather than diversify the field and subject of study. They also need to increase the citation count by accumulating research work with a high degree of completion. In addition, many universities with a lot of enrolled graduate students of master's and doctorate course have a responsibility to encourage the formation of school. Meanwhile, if the maste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are not official publications unlike journals, the citation of them should be avoided institutionally because it is the unique phenomena of Korea.

**Key Words :** multidimensional scaling, social network analysis, citation reference, human geography,  
*Journal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Geography)*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간이 천문을 풀어쓴 것이 인문으로, 인문지리학은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인간 그 자체보다는 인간의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공간인지라는 관점에서의 연구는 인간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Abe, 2007, 432-433). 이러한 인간의 행위대상을 연구하는 인문지리학은 지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Ratzel의 환경론 발표 이후 새로운 많은 연구방법들이 제시되었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물들도 쏟아져 나왔다. 이들 연구물들은 주로 학회지를 통해 발표되었는데,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분석은 연구방법의 흐름을 파악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고, 또 그 나라 학문의 발달사를 짚어 보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인용하는 참고문헌은 그 연구와 관련된 연구물들이기 때문에 학문분야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에 게재된 인문지리학 관련 논문과 이에 인용된 참고문헌을 자료로 하여 인문지리학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그 분야에 따라 분류하고, 저자들 간의 학문적 인용에 의한 지적 네트워크를 규명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회지에 대한 분석은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Economic Geography*, *Geographical Review*의 세 학술지를 대상으로 1958~1960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에서 인용된 저자의 상호인용회수를 파악한 Bunge(1961)의 연구를 바탕으로 일종의 인용 OD행렬을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sup>1)</sup>으로 복원한 Sugiura의 연구(1986)가 있다. 이 연구는 계량혁명에 가담한 학자들과 다른 지리학자들과의 관계를 구분한 것이다. 즉, Berry, Garrison 등의 워싱턴 학파의 학자들은 주로 중심지나 도시지리학 연구자에 의해 둘러

싸여 다른 지리학자들과 확실히 구분된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다. 이에 대해 아이오아 학파의 McCarty나 위스콘신 학파의 Robinson은 위의 도시지리학이나 중심지 연구 및 계량분석으로 특화된 연구자들과 Cressey(중국 연구), Trewartha(일본 연구), Spate(인도 연구) 등의 지역연구자나 계통지리학자와의 중간적 역할을 하는 연구자로 규정했다. 따라서 문헌의 인용에서 워싱턴 학파는 전통적인 지리학자와 비교했을 때 다소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났다. 또 지역과학(regional science)을 창시한 Isard와 사회물리학(social physics)을 창시한 Stewart와 그의 제자인 Warntz가 워싱턴 학파의 학자들과 McCarty, Robinson 사이에 위치하는 것은 이들 두 인접학문 분야에 계량혁명이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Shimizu(1998)는 1974~1993년 사이에 일본지리학회지인 「地理學評論(시리즈 A)」에 게재된 논문의 인용빈도를 논문별·저자별로, 또 저자별 인용빈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과거 20년 동안 5회 이상 인용한 논문은 자연지리학이 인문지리학보다 많았고, 자연지리학에서는 지형학이, 인문지리학에서는 도시지리학의 피인용 논문수가 많다는 점, 그리고 피인용 저서는 지형학, 도시지리학과 계량지리학이 많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인문지리학 중 도시지리학을 중심으로 연구한 Abe(2007)는 일본 도시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매듭짓기 위해 1971~1975년과 2001~2005년 사이에 「地理學評論」, 인문지리학회지인 「人文地理」, 경제지리학회지인 「經濟地理學年報」의 세 학회지에 게재된 인문지리학 논문의 인용문헌을 정리하고,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2005년 사이에 도시지리학의 연구영역, 또 도시를 연구대상 또는 연구수단으로 연구했는가 여부로 분류해 시기별로 발표된 논문수와 학회지별로 발표된 논문수를 파악했다. 그리고 인문지리학과 타 인문·사회과학 인용문헌과의 상호관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도시지리학의 연구는 초기에 点的분석이 많았고, 후기에는 面的분석이 많다는 점과 최근으로 올수록 계량적 분석보다는 인간 그 자체나 인간집단에 주목한 논문수의 증가를 지적했다. 또

1971~1975년, 2001~2005년 사이에 위 세 학회지의 인용문헌에서 논문 한 편당 인용문헌수는 증가했는데 비해 지리학의 인용률은 낮아지고 역사학, 경제학의 인용은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사회학 인용의 증가와 더불어 다른 학문분야에서의 인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03~2006년 일본사회학회지인 「社會學評論」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지리학에 비해 그들 분야에서의 인용이 많아 지리학 성과의 유효성이 다른 학문분야에 매력(appeal)적 이도록 하지 않으면 인문지리학은 붕괴되거나 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994~1999년 사이에 발간된 「地理學評論」(第67卷~第72卷)에 게재된 논문에 표시된 일본어 주요어(key words)를 분석한 Tomatsuri 등의 연구(2001)는 부분별 용어수와 출현회수를 파악하고, 주요어의 특징, 표시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지리학의 연구동향에서 수량적으로 명시하는 지표로 주요어의 의의가 증대되고, 나아가 이러한 인식에서 이를테면 시소러스(thesaurus)적으로 지리학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주요어 가이드라인이 책정되면 이것이야말로 다른 학문분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리학의 독자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유력한 학계의 공동재산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地理學評論」과 「經濟地理學年報」에 게재된 논문생산연령에 대해 분석한 Yagasaki(2005)와 Ueno(2012)의 연구 등도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에 게재된 인문지리학 논문과 그 인용문헌을 통해 게재 논문의 연구영역별 변화와 게재된 논문의 저자별·시기별 논문발표 건수의 변화 및 인용문헌을 통한 저자간 접근방법상의 친밀도 및 지적(知的)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학회발달사의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 연구방법과 자료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지리학 발달의 시기구분을 하고, 시기별 연구영역별 발표논문수의 변화를 알아보고, 1963년부터 2010년까지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에 게재된 발표논문의 시기별·저자별 논

문 발표편수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 발표된 논문의 참고문헌 중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 문헌자료를 이용해 저자의 지적 친밀도를 유형화하기 위해 저자가 인용한 문헌의 복잡한 다차원 관계를 2차원 평면공간상에 단순한 구도로 시각화해 나타내는 다차원 척도법을 적용했다. 그리고 인용문헌에 의해 저자간의 지적 관련성을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에 통해 고찰했다.

최근 사회-공간의 내재적 연관성을 보다 구체화한 Jessop, Brenner와 Jones(2008)는 네 가지 차원에서 인식론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네트워크는 이동, 유동, 연결성(connectivity), 관계성(relationality)에 초점을 둔 사회-공간적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회-공간의 관련성을 저자인 행위자간의 인용문헌에 의한 지적 네트워크로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에 게재된 인문지리학 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행위자로서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비의도적인 상호행위에 의해 맺어진 사회적 관계를 집단 내 규범과의 관련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끼리 서로 만든 관계 그 자체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Sohn, 2002; Yoshida, 2009). 본 분석에서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의 하나인 NetMiner 3.0을 이용해 인용문헌 네트워크 분석을 행했다.

연구대상은 1963년 대한지리학회 기관지인 「地理學」이 창간된 이후 2010년 「대한지리학회지」 45권 6호까지 출간된 141책이다. 대한지리학회 기관지인 「地理學」 1호는 1963년에 출간되었고 그 3년 뒤에 2호가, 그리고 그 2년 후에 3권 1호가 발간됐으며, 1968년부터 매년 1호씩 발간되다가 1974년부터 연 2호씩 발간되었다. 그 후 1991년 제24권부터 연 3호로 발간되다가 1993년부터 영문호를 포함하여 4호씩 발간됐으며, 1994년부터 학회지 명칭이 「대한지리학회지」로 바뀌었다. 그리고 1998년 영문특집호(국제심포지엄-인간, 문화 그리고 환경-) 발간을 계기로 1999년부터 연 5호씩 발간되었고, 2003년부터 영문호 1호를 중간해 연 6호 체제로 바뀌었으나 2010년부터 영문호 투고논문의 부족으로 발행이 중단되면서 그림과

Table 1. Impact factor index rank (during four years) of major academy journals in geography field, 2009.  
지리학 분야에서 주요 학회지의 4년간 영향력 지수 순위(2009년)

Rank of impact factor index (during four years)	Major journal of geography field	Impact factor index during four years	Impact factor index (excluding oneself citation)	Index excluding oneself citation (ZIF)
139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0.96	0.78	0.77
180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0.81	0.64	0.71
190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0.80	0.71	0.89
199	Journal of Korean Geomorphological Association	0.77	0.35	0.46
206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0.75	0.62	0.82
222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0.71	0.54	0.76
255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0.65	0.34	0.51
402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Education	0.40	0.28	0.70

Sourc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한국연구재단(<http://www.kci.go.kr/>, 최종열람일: 2012년 4월 9일)

표를 영문으로 작성해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를 선정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의 학회지로 가장 먼저 창간됐으며, 또 심사자로부터 논문심사를 가장 오래전부터 받아온 학회지로서 2009년 기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sup>2)</sup> 분석대상 2,146개 학술지 중에서 4년 영향력 지수(IF: Impact Factor)가 139위로 지리학 분야에서 가장 높고 자기인용을 제외한 4년 영향력지수(자기인용 제외 IF) 또한 0.78로 가장 높은 학회지이기 때문이다(Table 1).

본 연구는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에 게재된 국내 저자의 인문지리학분야<sup>3)</sup> 논문과 이에 참고한 미주·각주의 문헌 및 참고문헌을 조사하고 인용된 문헌자료 중에서 우리나라 지리학 전공자의 논문 및 단행본,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지도·통계류, 학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 발표문 및 토론문은 제외했다. 인용문헌은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 제1권 제1호부터 제27권 제3호까지는 각주에서, 나머지 제45권 6호까지는 참고문헌에서 전체 참고문헌, 지리학분

야 문헌, 그 밖의 문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논문의 인용편수와 단행본의 권수에 대해 자기 인용도 포함시켰고, 단행본이나 논문의 경우 단독연구는 100%로 했지만 공동연구의 경우 2인은 70%, 3인은 50%, 4인 이상은 30%로 각각 간주했다<sup>4)</sup>. 총 인용문헌 17,960개 중에서 우리나라 지리학 전공자의 문헌인용은 2,346편이었으나 우리나라 지리학 저자의 인용문헌이 없는 논문은 97편으로 실제 분석대상인 인용문헌수는 2,249편이다.

## 2.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

### 인문지리학 게재논문수의 변화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인문지리학 분야의 게재논문 분석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 지리학 연구의 발달시기를 구분해 보면, Park(2005)은 한국지리학 연구의 시기구분을 1970년대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1년 이후의 4시기로 구분했다.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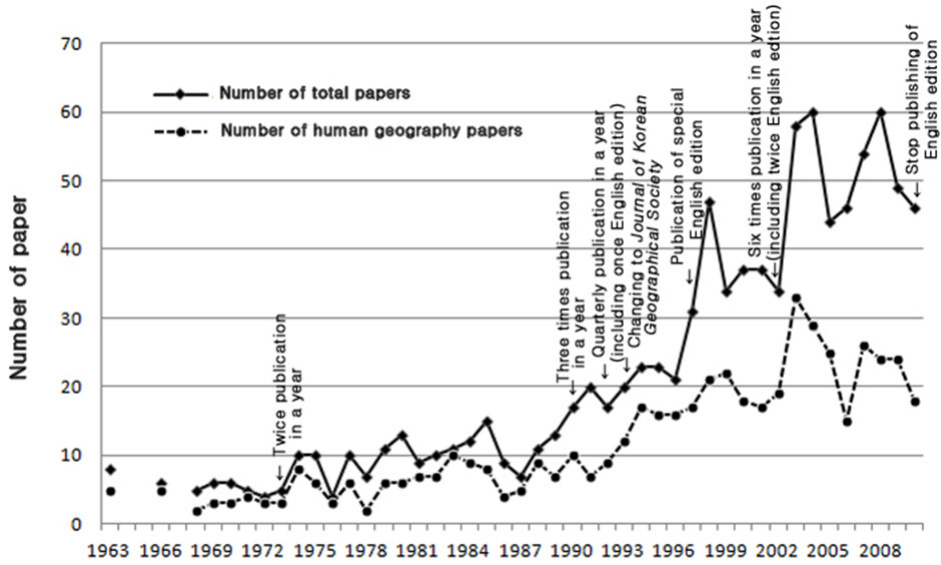


Figure 1. Changes in number of total papers and human geography papers published i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Geography)*. 대한지리학회지의 총 게재논문수와 인문지리학 분야 게재 논문수의 추이

고 Baik(2006)은 한국 인문지리학 발달의 시기구분을 1945~1970년을 설립 및 개편기(foundation and reorganization), 1971~1980년을 요람기(infancy), 1981~1990년을 성장기(growth), 1991~2001년을 도약기(jump and rush), 2001~2005년을 성숙 및 세계화기(maturity and globalization)로 구분해 Park과 유사한 시기구분을 했다. 그러나 Han(2007, 363)은 한국경제지리학의 발달을 조선지리학회가 창립된 1945년부터 1949년 대한지리학회를 거쳐 기관지 『地理學』이 출간되기 이전인 1962년까지를 ‘경제지리학 요람기’, 1963~1970년대 후기까지를 ‘경제지리학 정립기’, 1980년대 전기부터 1990년대 전기까지 고도경제성장을 거친 시기를 ‘경제지리학 도약기’, 1990년대 후기 이후를 ‘경제지리학 전환기’로 4시기로 구분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연구물이 가장 많은 경제지리학의 발달시기에 맞추어 1948년 대한지리학회가 창립되었으나 학회지는 1963년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1963년을 연구시점으로 보고 1963~1970년대 후기까지를 ‘정립기’, 1980년대 전기부터 1990년대 전기까지를 ‘도약기’, 1990년대 후기 이후를 ‘전환기’로 세 시기 구분해 파악하기

로 한다. 이와 같은 시기구분은 Figure 1과 같이 게재 논문수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게재논문수가 많아짐에 따라 학회지의 중간 및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위의 세 시기 동안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에 게재된 논문수는 모두 985편이며, 이 가운데 인문지리학 관련 논문수는 516편으로 전체의 반을 조금 넘는다. 이를 시기로 보면 정립기에는 58.2%를 차지했으며, 도약기에는 59.4%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나 전환기에는 49.1%를 점해 인문지리학 분야의 논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Table 2). 이와 같은 현상은 1990년대부터 절대편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인문지리학 관련 각종 전문학회가 창립되어 학회지가 발간되고 이들 학회지가 등재(등재후보) 학술지가 되어<sup>5)</sup> 게재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기별·분야별로 게재된 논문건수를 보면 농·수산업 분야는 1963년 이후 점차 감소했고, 도시지리학과 촌락지리학 분야는 도약기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도시지리학 분야는 1998년 「한국도시지리학회지」가 창간되어 이 분야의 연구물들이 많이 게재되어 나타난 현상이고<sup>6)</sup>, 촌락지리학은 농·산·어촌

Table 2. Changes in human geography papers published i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Geography)*.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에 게재된 인문지리학 논문편수의 변화

	Period of establishment	Period of leap	Period of transition	Total
Number of total papers(A)	110	217	658	985
Number of human geography papers(B)	64	129	323	516
(B/A) × 100	58.2	59.4	49.1	52.4

Note: Including short notes.

지역에 인구가 줄어들어 따라 연구물이 적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모두 증가의 추세를 나타내었다. 세 시기에 걸쳐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는 분야는 문화지리학으로 후기 산업화 이후 경제발전에 따른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됨으로서(Han, 2002)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3. Number of papers published i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Geography)* by period and research field.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에 게재된 논문의 시기별, 연구영역별 게재 편수

Period	Methodology (Historical development)	Agricultural and fisheries geography	Industrial geography	Geography of distribution	Service geography
Period of establishment	3	11	10	1	
Period of leap	4	8	15	7	4
Period of transition	9	7	27	25	12
Total	16	26	52	33	16
Period	Geography of transportation	Geography of information	Theory of regional development	Social geography	Urban geography
Period of establishment		2	2		11
Period of leap	9	5	14	1	27
Period of transition	32	14	33	9	26
Total	41	21	49	10	64
Period	Rural geography	Population geography	Political geography	Historical geography	Cultural geography
Period of establishment	8	2	3	5	5
Period of leap	14	8	3	11	4
Period of transition	9	10	9	19	41
Total	31	20	15	35	50
Period	Geography of tourism	Others	Total	%	X
Period of establishment			63	12.2	
Period of leap	2	2	138	26.7	
Period of transition	12	21	315	61.1	
Total	14	23	516	100.0	

다음으로는 사회지리학과 관광지리학 분야의 증가를 볼 수 있는데, 사회지리학 분야는 범접 및 국제노동력 이주와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가정의 출현 등으로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이고, 관광지리학 분야는 소득의 증대로 여가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통·교통지리학 분야의 증가도 다소 높아진 것은 소득증대에 따른 규제완화로 다양한 유통업태가 나타나고 다양한 교통기관의 이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영역별로 보면 경제지리학 분야가 41.6%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도시지리학(12.4%), 문화지리학(9.7%)의 순이다. 경제지리학 분야 중에서는 공업지리학이 21.8%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서 지역개발론(20.6%), 교통지리학(17.2%), 유통지리학(13.9%)의 순이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정립기에는 농업·수산업지리학, 도시지리학, 공업지리학의 논문수가 많았고, 도약기에는 도시지리학, 공업지리학, 지역개발론, 촌락지리학, 역사지리학의 논문수가 많았다. 그러나 전환기에는 문화지리학, 지역개발론, 교통지리학, 공업지리학, 도시지리학, 유통지리학, 역사지리학, 정보지리학, 관광지리학의 순으로 연구영역의 큰 변화가 나타났다(Table 3).

### 3. 저자별·시기별 논문 발표 건수의 변화

1963년 제1호부터 2010년 제45권 제6호까지 게재된 인문지리학 분야 논문편수를 보면 한주성의 발표가 24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희연(15.6편), 최병두(15.0편), 장보용(10.0편)의 순으로 19위까지의 논문 편수는 4.7편으로 나타났다(Table 4).

다음으로 시기별·저자별 논문발표 편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립기에는 형기주가 6.0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하였고, 그 다음으로 장보용(5.0편), 박영한(3.4편)의 순으로 2편 이상의 저자가 16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약기에는 한주성이 6.7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했고, 그 다음으로 이희연(6.4편), 장보

Table 4. Number of papers by each author (1963-2010). 저자별 논문발표 편수(1963~2010년)

Rank	Author	Number of papers
1	Ju-Seong Han	24.0
2	Hee-Yeon Lee	15.6
3	Byung-Doo Choi	15.0
4	Bo-Woong Chang	10.0
5	Kie Joo Hyong	9.0
6	Chan-Ki Suh	8.0
7	Sam Ock Park	7.5
8	Jong-Han Jeon	7.3
9	Young-Jun Choi	6.7
10	Youngmin Lee	6.4
11	Wookung Huh	6.3
12	Jeong-Rock Lee	5.9
13	Mi-Ae Bae	5.7
	Han Suk Ock	5.7
	Kyung-Sik Joo	5.7
16	Young-han Park	5.6
17	Inn Kim	5.0
	Hak-Won Lee	5.0
19	Sangcheol Kwon	4.7
	Chi-Young Jung	4.7
	Guemsoo Hong	4.7

용(5.0편)의 순으로 14명의 저자가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마지막으로 전환기에는 한주성이 17.3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했고, 그 다음으로 최병두(11.0편), 이희연(9.2편), 전중환(7.3편), 배미애(5.7편), 이영민(5.4편), 박삼옥(5.2편)의 순으로 4편 이상의 연구자가 13명인데, 각 시기에 따라 논문이 한 편씩 증가하여 발표가 많아지고 있다(Table 5). 이는 지리학 1.5세대 이후의 연구자들이 해외유학을 갔다 와 연구열이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1993년부터 발간된 영문호는 2009년까지 모두 25책으로 총 논문수(170편) 중 인문지리학 논문수가 101편으로 59.4%를 차지했다. 101편의 인문지리학 논문 중 발표회수를 보면, 이희연이 3.7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권상철·류제현·배미애·최병두가 각각 3편, 이영민이 2.7편의 순으로 2편 이상 게재자가 17명으로 발표자수 73명 중 23.3%를 차지했다(Table 6). 발표건수가 많은 연구자들은 대부분 영어권 국가에 유학을 갔다 온 저자들이다.

Table 5. Number of papers by each period and author (1963-2010). 시기별 · 저자별 논문발표 편수(1963~2010년)

Rank	Period of establishment	Rank	Period of leap	Rank	Period of transition
1	Kie Joo Hyong 6.0	1	Ju-Seong Han 6.7	1	Ju-Seong Han 17.3
2	Bo-Woong Chang 5.0	2	Hee-Yeon Lee 6.4	2	Byung-Doo Choi 11.0
3	Young-han Park 3.4	3	Bo-Woong Chang 5.0	3	Hee-Yeon Lee 9.2
4	Dae Hyeon Kang 3.0	4	Chan-Ki Suh 4.0	4	Jong-Han Jeon 7.3
	Inn Kim 3.0		Kyung-Sik Joo 4.0	5	Mi-Ae Bae 5.7
	Chan-Ki Suh 3.0		Byung-Doo Choi 4.0	6	Youngmin Lee 5.4
	Hong Suk Oh 3.0	7	Jeong-Rock Lee 3.7	7	Sam Ock Park 5.2
	Jae Kie Hwang 3.0	8	Taekyung Koh 3.0	8	Chi-Young Jung 4.7
9	Dong Kyu Cho 2.5		Woo-ik Yu 3.0	9	Donghoe Koo 4.0
10	Do-Yang Rho, 2.0		Han Suk Ock 3.0		Sang-Il Lee 4.0
	Seong Ho Park 2.0		Hak-Won Lee 3.0		Won-Suk Choi 4.0
	Moon-Chong Lee 2.0		Hae Un Rii 3.0		Wookung Huh 4.0
	Hak-Won Lee 2.0		Kyung-sook Jeon 3.0		
	Han Soon Lee 2.0		Kie Joo Hyong 3.0		
	Duck-Soon Im 2.0				
	Young-Jun Choi 2.0				

Table 6. Number of English edition papers by each author. 저자별 영문호 발표논문수

Rank	Author	Number of papers
1	Hee-Yeon Lee	3.7
2	Sangcheol Kwon	3.0
	Je-Hun Ryu	3.0
	Mi-Ae Bae	3.0
	Byung-Doo Choi	3.0
6	Youngmin Lee	2.7
7	Taekyung Koh	2.0
	Hyun-Mi Kim	2.0
	Yeon-Taek Ryu	2.0
	Jungyul Sohn	2.0
	Sang-Il Lee	2.0
	Jeong-Rock Lee	2.0
	Jong-Ho Lee	2.0
	Heesang Lee	2.0
	Jae-Heon Choi	2.0
	Wookung Huh	2.0
	Keumsoo Hong	2.0

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연구 집단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나타난다. 즉, 지리학의 패러다임은 관점과 이론, 주제와 분야, 방법과 방법론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나타난 결과이다(Lee, 2006, 97). 이러한 면을 파악하기에 앞서 세 시기에 게재된 논문에서 17,999 개의 인용문헌을 추출했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지리학 관련연구자의 인용문헌수는 2,231개로 전체 인용문헌수의 12.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국인 지리학 관련 연구물이나 국내외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통계 등을 인용해 우리나라의 짧은 인문지리학연구의 역사를 잘 반영했는데, 이는 일본의 반영률<sup>7)</sup>보다도 낮다.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문지리학자들은 호기심이 왕성해 선진국 연구 성과의 지식을 얻는데 노력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섭렵한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인문지리학계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에 게재된 논문 중 우리나라 지리학 인용문헌이 없는 105편의 논문을 포함한 총 516편의 평균 인용문헌수는 34.7편으로 일본의 주요 학회지보다 인용문헌수는 많으나<sup>8)</sup> 지리학 관련 연구자의 평균 인용문헌수는 4.3편으로 우리나라의 문헌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지리학의 역사가 짧고 선진적인 연구가 적다는 점 등에서 찾

#### 4. 인용문헌의 특징과 인적 네트워크

##### 1) 인용문헌의 특징

지리학의 패러다임은 한 연구가에 의해서만 이루어



Table 7. Changes in number of citations by each period. 시기별 인용문헌수의 변화

Period	Number of human geography papers	Number of citations of per paper	Number of citations of Korean geographer of per paper	Number of oneself citations of per paper
Period of establishment	64	24.5	2.6	1.1
Period of leap	129	35.8	5.4	1.2
Period of transition	323	36.6	4.2	1.5
All period	516	34.7	4.3	1.4

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피인용문헌은 전체 인용문헌의 4.0%로 이는 우리나라 인문지리학연구자 문헌이 32.0%를 차지하여 자기인용을 많이 했다.

인용문헌수를 시기별로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편당 인용문헌수와 자기피인용문헌수가 증가해 연구성과가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인용문헌수도 많아졌으며, 도약기에는 편당 한국지리학자의 인용문헌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전환기에는 편당 한국지리학자의 인용문헌수가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전환기의 세계 인문지리학 연구 트렌드와 맞지 않는 논문이 많았던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의 연구물이 많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Table 7).

다음으로 피인용수 20회 이상의 연구자는 모두 26명으로 가장 많이 인용한 저자는 박삼옥으로 147회이고, 그 다음으로 한주성(72회), 최병두(61회), 이희연

(59회)의 순으로 논문게재편수가 많은 연구자의 인용건수가 많다. 그리고 자기인용을 제외한 인용건수는 박삼옥이 82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이희연(47회), 남영우(38회), 이기석·홍경희(36회), 최영준(26회)의 순이다(Table 8). 피인용건수는 자기인용이 많은 연구자, 지도학생을 많이 배출한 대학 연구자<sup>9)</sup>, 제3자가 인용한 연구자, 이들 유형의 결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인용한 논문을 보면, 서찬기의 박사학위논문이 9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박삼옥이 IGU공업공간조직위원회에서 구두로 발표한 논문과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에 게재된 논문이 각각 8회, 박시영·양보경·허우공의 논문이 각각 7회의 순으로 5회 이상 인용된 논문은 모두 16편인데, 인용편수로 보면 박삼옥이 4.7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Table 8. Author over 20 citation count among papers published i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Geography)*. 게재논문에서 인용 20회 이상 인용 저자

Rank	Author	Citation count	Excluding oneself citation	Rank	Author	Citation count	Excluding oneself citation
1	Sam Ock Park	147	82	14	Young-Jun Choi	28	26
2	Ju-Seong Han	72	21	15	Inn Kim	26	23
3	Byung-Doo Choi	61	17		Hong Suk Oh	26	11
4	Hee-Yeon Lee	59	47		Sang-Il Lee	26	7
5	Ki-Suk Lee	42	36	18	Bo-Woong Chang	25	8
6	Young-Woo Nam	40	38		Kie Joo Hyong	25	19
7	Chan-Ki Suh	39	20	20	Ki-Yeop Choi	24	22
8	Kyung Hi Hong	38	36	21	Jun-Young Sung	23	18
9	Woo-ik Yu	34	23	22	Ji Ho Lee	22	22
	Dong Kyu Cho	34	22	23	Kee-Bom Nahm	21	16
11	Yongwoo Kwon	31	20		Jong-Han Jeon	21	3
	Young-han Park	31	25	25	Eun-Sook Lee	20	11
	Wookung Huh	31	21		Kyung-sook Jeon	20	15

Table 9. Rank of paper related geography by over 5 citations. 5회 이상 인용된 논문과 피인용건수

Rank	Article	Citation count	Excluding oneself citations count
1	Chan-Ki Suh, 1975, Study on the regional structures of Korean agriculture, Doctor of Literature Dissertation of Kyungpook National Univ.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9	5
2	Sam Ock Park, 1993,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the role of the Asian NIEs in the Asian Pacific rim area, A paper presented to the Conference of the IGU Commission on the Organization of Industrial Space, Tokyo, July.	8	5
	Sam Ock Park, 1996, Network and embeddedness in the dynamic types of new industrial districts, <i>Progress in Human Geography</i> , 20.	8	4
4	Siyong Park, 1981, Rural development in Korea, <i>Economic Geography</i> , 57.	7	7
	Bo Kyung Yang, 1980, A study on the origin and forming process of a clan village, Sari, Hwasung county, Kyunggi province, <i>Journal of Geography</i> , 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7	7
	Wookung Huh, 1991, The journey-to-work and residential location choice in Seoul, <i>Geography</i> , 2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7	7
7	Sam Ock Park and Markusen, 1995, Generalizing new industrial districts, <i>Environment and Planning A</i> , 27.	6	3
	Chan-Ki Suh and Jung-Woo Lee, 1978, Agricultural Regions of Korea, '77 Policy Research Theme of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6	3
	Ki Suk Lee, 1968, A study of ku-eup (former local administrative town) settlements in Kyunggi province, <i>Geography</i> , 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6	6
	Ki-Suk Lee, 1980, A study of residential segregation and patterns in metropolitan area, <i>A Study of Urban and Rural in Korea</i> , Bojinjae. (in Korean)	6	6
11	Inn Kim, 1976, Urbanization and changing aspects of spatial structure of urban system in Korea, 1976-2001, <i>Geography</i> , 1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5	4
	Woo-ik Yu, 1972, A geographical study on the periodic markets in Korea: With emphasis on the central place hierarchy, <i>Naksanjiri</i> , 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5	5
	Sam Ock Park, 1989, Location of high technology industrie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i> , 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5	3
	Sam Ock Park, 1994, High technology industrial development and formation of new industrial district: Theory and empirical cases, <i>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i> , 2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5	5
	Moon-Chong Lee, 1987, A study of the formation of rural settlement in the Taean peninsula, Doctor of Literature Dissertation of Seoul National Univ.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5	5
	Ji Ho Lee, 1975, Geographical study of population changes from 1960 to 1970 in Korean, <i>Geography-Education</i> , 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5	5

다음으로 이기석 2편, 서찬기 1.7편의 순이었다. 자기 피인용회수를 제외하면 박시영·양보경·허우궁이 7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이기석이 6편이었다 (Table 9).

한편 단행본의 피인용회수를 보면, 박삼욱의 『현대 경제지리학』이 8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이희연 『地

理統計學』의 순으로 5회 이상 인용한 단행본은 6권이 있었다(Table 10).

다음으로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에서 인용한 학술지는 모두 209개로 이 중 20편 이상을 인용한 학술지를 보면 Table 11과 같다.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에서 인용한 타 학술지를 시기별로 인용회수

Table 10. Rank of book related geography by number of citations. 피인용수가 많은 지리학 관련 단행본

Rank	Book	Citation count	Excluding oneself citations count
1	Sam Ock Park, 1999, <i>Modern Economic Geography</i> , Arche (in Korean).	8	6
2	Hee-Yeon Lee, 1989, <i>Geographical Statistics: Geographical Data Analytic Technique</i> , Bobmunsa. (in Korean)	7	7
3	Young-Woo Nam, 1985, <i>Theory of Urban Structure</i> , Bobmunsa. (in Korean)	5	5
	Young-Jun Choi, 1990, <i>Yungnamdae-ro: A Study of Historical Geography for Ancient Road in Korea</i> ,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of Korea Univ. (in Korean)	5	5
	Ju-Seong Han, 1996, <i>Geography of Transportation</i> , Bobmunsa. (in Korean)	5	0
	Kyung Hi Hong, 1966, <i>Daegu City: Urban Geographical Study</i> , Daegu city. (in Korean)	5	5

를 살펴보면 모두 국내 지리학 전공자의 인용문헌 건수 2,231건 중 출판물의 인용건수는 1,440건으로 791건은 출판물로 발간되지 아니한 대학원 석·박사학위논문 등으로 3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인용수가 365건으로

16.4%를 차지했으며,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논문집이 12.1%, 「地理學論叢(駱山地理)」이 5.4%(120건), 영미권 학술지가 5.2%를 차지했으며, 일본의 도호쿠(東北)지리학회의 학회지인 「季刊地理學(東北地理)」과 「地理學評論」도 각각 24건, 23건이 인용되었다. 국

Table 11. Citation count of others academic collection cited from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Geography)* by each period.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에서 인용한 타 학술지의 시기별 인용회수

Rank	Academic collection	Total	Period of establishment	Period of leap	Period of transition
1	<i>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Geography)</i>	365	111	132	122
2	<i>Journal of Geography (Naksanjiri)</i>	120	35	74	11
3	<i>Journal of Geography Education (Geography- Education)</i>	66	30	31	5
4	<i>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i>	57	9	32	16
5	<i>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i>	50		11	39
6	<i>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i>	49			49
7	<i>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i>	41			41
8	<i>Journal of the Korea Planners Association</i>	39	2	22	15
9	<i>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i>	35			35
10	<i>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i>	26		25	11
11	<i>Research of Review of Kyungpook National Univ.</i>	25	25		
12	<i>Quarterly Journal of Geography (The Tohoku Geographical Association)</i>	24		24	
13	<i>Geographical Review of Japan (The Association of Japanese Geographers)</i>	23	8	14	1
Others	Collection of papers of domestic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ion	271	86	147	38
	Journals of domestic society	67	3	20	44
	Academic collections of Japanese	35	7	26	2
	Academic collections of English and American	116	2	29	85
	Others publish matters	31	4	14	13
Total		1,440	322	601	527

내 대학 및 연구기관 논문집(학과 발행의 논문집 포함)의 인용건수가 많은 것은 학회의 기능으로서 학회지 투고논문의 심사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학회지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대학의 교원연구업적평가 실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들 논문집의 인용건수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에서 출간하는 학과 기관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 학술지의 인용이 많은 이유는 1970·1980년대에 일본의 대학에 유학한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의 인용 때문인데, 유학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므로 두 일본학회지의 인용문헌 건수는 감소추세인데 대해 국내 학회지와 영미권 유학생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 지역의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자의 인용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각 전문지리학회지는 창간연도에 따라 그 인용회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 2) 인용문헌에 의한 저자의 유형화와 네트워크

여기에서는 저자가 여러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했을 경우 다른 저자와의 학문적 관련성 여부를 파악할

기 위해 우리나라 인문지리학 연구자 중 인용문헌이 없는 논문과 또 자기인용을 제외하고<sup>10)</sup> 저자간의 인용문헌에 의한 인용 OD행렬표(288×288)를 작성했다.

다음으로 인용 OD행렬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를 다차원척도법에 의해 복원함에 따라 인문지리학을 연구하는 저자 간 접근방법의 친밀도를 파악할 수 있다<sup>11)</sup>. 이 인용 OD행렬은 행렬요소에 0이 많아 안정적인 답을 얻기에 좋지 않아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의 지리학 연구자로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의 평균 게재 편수인 1.72편 이상<sup>12)</sup> 게재한 인문지리학 저자로 우리나라 연구자가 인용하지 않는 한 명의 저자와 대각요소의 값을 0으로 함에 따라 인용자가 없는 세 명의 저자를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우측 상반부의 행렬요소와 좌측 하반부의 행렬요소를 합계한 인용 삼각OD 행렬표(88×88)를 작성해(Sugiura, 1986, 205) 구간척도 측정수준으로 ALSCAL(Alternating Least-squares SCALing) 다차원 척도법을 IBM SPSS Statistics 19에 의해 분석했다. 그 결과 2차원의 거리 자료에서 괴리성을 나타내는 Young 스트레스(stress) 값은 0.1142로 보통의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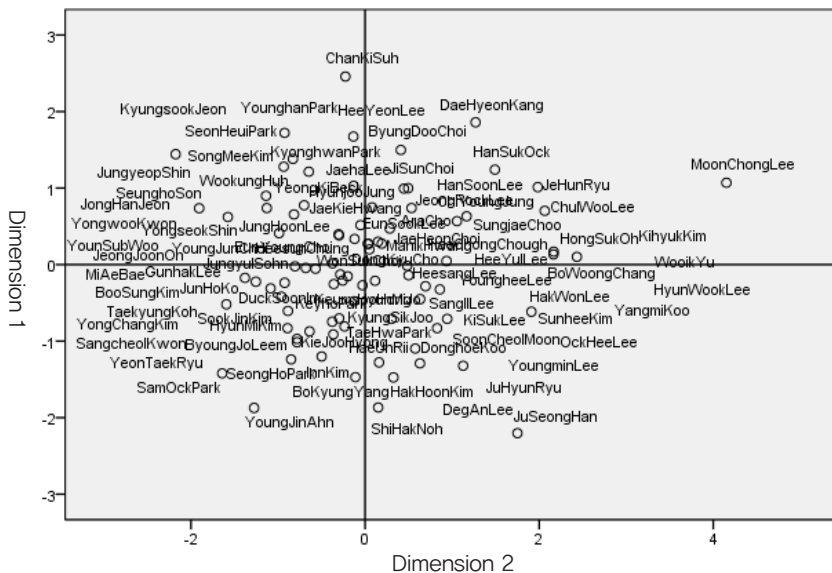


Figure 2. Proximity of human geographers from literature mutual citation count.  
문헌상호인용회수에서 본 인문지리학자의 친근성 (인용삼각 OD행렬)

도(0.10~0.15)를 나타내었고, 결정계수<sup>13)</sup>는 0.9450이었다.

그 결과인 Figure 2를 살펴보면 문헌인용에서 볼 때에 같은 대학 학과출신의 인용문헌이 많았지만 특정한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인문지리학자의 이질적인 존재가 각 분면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88명의 저자 중 최종학위 취득학교가 국내 12개교, 해외 28개교로 국내에서는 서울대 지리학과가 15명, 지리교육과가 5명, 경북대·고려대·이화여대·전남대·한국교원대가 각각 3명이며, 외국대학의 경우 미네소타대 8명, 오하이오대 5명, 루이지애나대 4명, 도호쿠대 3명의 순으로 국내외를 포함해 1~2명을 배출한 대학이 30개교나 된다. 이러한 점이 특정한 접근방법에 의한 그룹 형성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되고, 또 전공분야도 경제지리학 27명, 도시지리학 20명, 문화지리학 10명, 사회지리학 8명, 역사지리학과 관광지리학이 각각 5명으로 다양해 접근방법론상의 공통점도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저자의 인용문헌에 의한 관련성을 사회 네트워크 분석으로 파악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에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수도권 의 통근유동에 관한 Lee와 Kim의 연구(2006a, b),

Koo(2008)의 고령친화산업 행위주체의 사회 네트워크 분석과 광고산업 광고제작의 공간적 네트워크의 연구(Koo, 2010) 등에서 행해졌으며, 저자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대학연구단지에 입지한 연구소의 연구원과 다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연구교육 네트워크로 파악한 Han의 연구(2001, 44-48)가 있으나 인용문헌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저자 간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앞의 자기인용을 제외한 인용OD 행렬표(88×88)자료를 이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용 네트워크 인용 전체의 연결 가능한 최대 연결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밀도는 저자들이 다른 저자들과 얼마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값이 0.083이며, 특정저자에 집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집중도는 71.13으로 나타났다(링크수는 318). 인용 네트워크에서 저자들의 중심성 분석에서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특정 저자가 가장 활발하게 다른 저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 값이 71.13이고, 네트워크 내에서 한 저자가 담당하는 매개자 또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정도의 중심성인 매개중심성(between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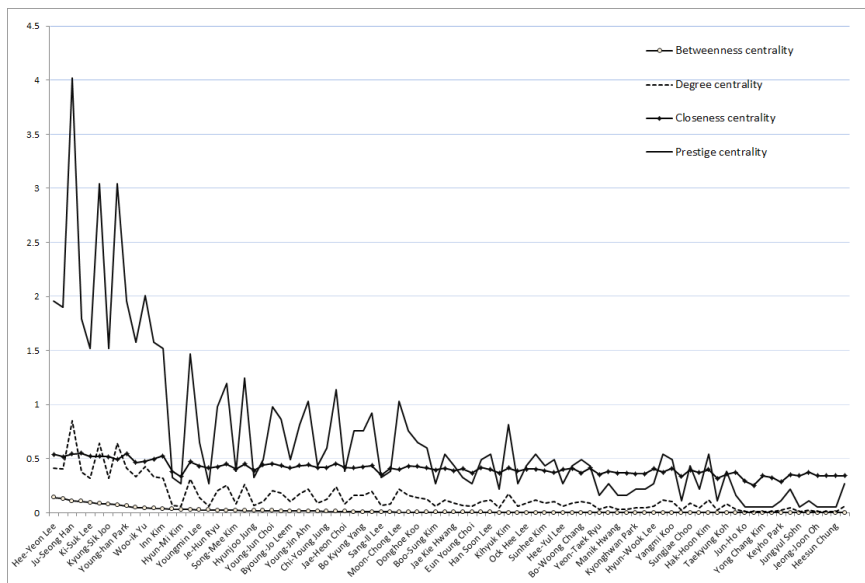


Figure 3. Distribution of centrality by each author. 저자별 각 중심성의 분포

Table 12. Correlation matrix among each centrality. 각 중심성간의 상관행렬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Prestig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Degree centrality	1,000	0,839	1,000	0,813
Closeness centrality		1,000	0,839	0,778
Prestige centrality			1,000	0,813
Betweenness centrality				1,000

centrality)은 0.123이다. 또 어느 저자가 가장 파워가 있고 위세력이 있는가의 위세중심성(prestige centrality, Bonacich power centrality)은 0.696, 한 저자가 다른 저자들과 얼마만큼 가까운가를 측정하는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0.290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결정도 중심성 0.5 이상은 한주성이 0.851로 가장 높고, 이어서 박삼옥·전종한(0.644), 류우익(0.425), 박영한·이희연(0.414), 최병두(0.402)의 순이었으며, 근접중심성은 권용우가 0.551로 가

장 높고, 이어서 박영한(0.547), 한주성(0.544), 이희연(0.540), 김인(0.524), 박삼옥·이기석(0.521), 주경식·최병두(0.518)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매개중심성은 이희연이 0.139로 가장 높고, 이어서 최병두(0.131), 한주성(0.108), 권용우(0.104)의 순이며, 위세중심성은 한주성이 4.017로 가장 높고, 이어서 박삼옥·전종한(3.040), 류우익(2.009), 박영한·이희연(1.954), 최병두(1.900), 권용우(1.791), 옥한석·허우궁(1.574), 김인·이기석·주경식(1.520)의 순으로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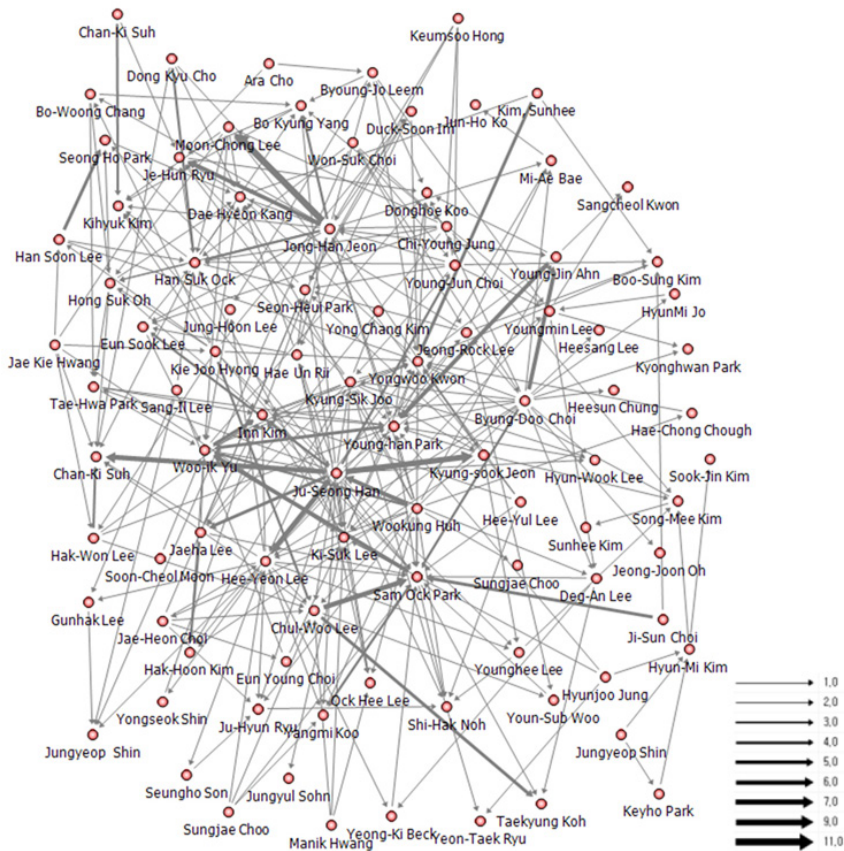


Figure 4. Structure of network by citation literature. 인용문헌에 의한 네트워크 구조

게 나타났는데 이를 나타낸 것이 Figure 3이다.

이들 중심성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Table 12와 같이 4개의 중심성은 서로 유의적인 상관관계<sup>14)</sup>를 나타내고 있어 어느 하나의 중심성을 파악해도 각 저자의 중심성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저자들 간의 연결선을 구축해 인용문헌에 의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Figure 4와 같이 가장자리의 저자들은 연결정도가 약한 편이지만 인문지리학을 연구하는 저자들 간의 지적 네트워크는 연결선이 긴밀하게 구축되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윗부분의 전종한(연결정도 중심성 0.644), 옥한석(0.333) 등을 중심으로 연결정도가 강한 것은 이들 저자들이 촌락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다른 저자들과의 연결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는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박삼옥, 류우익, 박영한, 이희연, 최병두, 한주성 등의 저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연결성을 형성하고 있다. 박삼옥은 공업지리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 류우익은 지역개발, 박영한은 도시지리학 분야, 이희연은 경제지리학 분야, 최병두는 사회지리학의 분야, 한주성은 유통·교통지리학의 선행연구를 통해 각각 위세중심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에 게재된 논문과 그 말미의 참고문헌을 자료로 인문지리학 분야의 논문별·저자별 인용빈도를 다차원척도법과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45년 조선지리학회가 창립되고 1949년 대한지리학회로 개칭해 1963년에 학회지가 처음 발간된 후 우리나라 지리학의 연구시기를 구분해 보면 1963~1970년대 후기까지를 '정립기', 1980년대 전기부터 1990년대 전기까지 고도경제성장을 거친 시기를 '도약기', 1990년대 후기 이후를 '전환기'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45년 동안의 인문지

리학 분야 논문수는 516편으로 총 게재편수의 52.4%를 차지했으며, 도약기에 인문지리학 분야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영역별로 보면 경제지리학 분야가 약 42%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도시지리학, 문화지리학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경제지리학 분야 중에서는 공업지리학이 약 2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지역개발론, 교통지리학, 유통지리학의 순이었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정립기에는 농업·수산업지리학, 도시지리학, 공업지리학의 논문수가, 도약기에는 도시지리학, 공업지리학, 지역개발론, 촌락지리학, 역사지리학의 논문수가 많았다. 그러나 전환기에는 문화지리학, 지역개발론, 교통지리학, 공업지리학, 도시지리학, 유통지리학, 역사지리학, 정보지리학, 관광지리학의 순으로 연구영역 지위의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저자별 논문계재에서 인문지리학 분야 상위 21명이 4.7편 이상 논문을 게재했으며, 시기별 상위 10위의 논문계재편수가 정립기에는 두 편, 도약기에는 세 편, 전환기에는 네 편으로 점차 증가해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영어논문은 2편 이상 게재자수가 17명으로 발표자수의 약 23%를 차지해 소수의 연구자가 게재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45년간 게재된 인문지리학 분야 논문에 인용된 문헌수는 약 18,000개이며 이 중 우리나라 지리학 관련연구자의 인용문헌수는 약 2,200여개로 전체 인용문헌수의 12.4%에 불과했다.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문지리학자들은 호기심이 왕성해 선진국의 연구 성과의 지식을 얻는데 노력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섭렵한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인문지리학계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국의 연구물보다 선진국의 연구물의 중요성만을 신뢰하는 사고가 작용한다면 한국의 연구물의 축적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문지리학 게재논문의 저자 당 평균 인용문헌수는 약 35편이며, 우리나라 지리학 관련 연구자의 평균 인용문헌수는 4.3편으로 우리나라의 문헌을 많이 인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지리학의 역사가 짧고 선진적인 연구가 적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피인용문헌은 전체 인용문헌의

약 4%로 이는 우리나라 인문지리학연구자 문헌의 약 32%를 차지해 자기인용이 많았는데, 특히 정립기에 연구 성과가 적어 자기 논문의 인용회수가 많았다. 인용문헌수를 시기별로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편당 인용문헌수와 자기피인용문헌수는 증가해 연구 성과가 증가함에 따라 인용문헌수도 많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피인용수 20회 이상의 연구자는 모두 26명으로, 피인용건수는 자기인용이 많은 연구자, 지도학생을 많이 배출한 대학 연구자, 제3자가 인용한 연구자, 이들 유형의 결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용문헌 중에는 대학원 석·박사학위논문을 35.5% 인용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한지리학회지(地理學)」인용수가 16.4%를 차지해 도약기까지 학회지 투고논문의 심사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학회지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교원연구업적평가의 실시로 국내 학회지와 영미권 유학생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 지역의 학술지에 게재한 인용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인용문헌에 의한 분석에서 인문지리학 논문저자들은 출신학교와 연구 분야가 다양하며 접근방법론상의 공통점이 적어 지적 친밀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보이지만 위세중심성이 높은 저자들을 중심으로 지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룹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회지의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를 대상으로 인용문헌에 의한 지적 친밀성과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공통된 접근방법의 그룹 형성은 이루어지 않았는데, 이를 위해 우선 각 연구자는 연구 분야와 주제를 다양화하기 보다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완성도 높은 연구물을 축적해 인용빈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석·박사학위논문은 학회지와 달리 공식적인 출판물이 아닌 경우 인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으로 제도적으로 이를 지양해야 할 점이다. 끝으로 장차 이와 같은 연구가 인문지리학분야 뿐만 아니라 자연지리학 분야, 인용문헌에서도 외국문헌 및 인접과학의 문헌을 분류해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 주

- 1) 다차원 척도법은 원래 계량심리학 분야에서 발전되었으나, 마케팅 분야에서는 1970년을 전후로 마케팅 조사자들이 제품 포지셔닝(positioning)을 목적으로 응답자들의 제품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측정해 시장세분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급속히 발전되어 온 개념이다. 다차원 척도법은 각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이용해 평가의 기준이 되는 차원을 찾아내고, 각 차원 위에서 평가 대상들의 위치를 규명함으로써 피조사자의 심리적 평가공간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기법이다.
- 2)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를 통해 선정된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와 게재논문에 대한 서지정보와 각종 인용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제공하는 전문정보서비스이다.
- 3) 지리학을 전통적으로 분류하면 지리학의 방법론 및 발달사를 취급하는 철학, 계통지리학, 지역지리 및 지도학, 계량적 분석방법 등을 포함하는 기법(techniques)으로 나눈다. 계통지리학은 다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분류되는데, 이에 준해 연구물을 구분했다(Haggett, 1972, 453). 지명에 관한 연구는 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계통지리학의 분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했다.
- 4) 2010년 충북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인 경우 책임연구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은 하지 않았음. 그 이유로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공동연구가 있어 이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5) 1973년 한국지리교육학회가 창립되고 1974년 학회지「地理教育研究」가 출간된 후 학회명이 국토지리학회로, 학회지명도 「국토지리학회지」로 변경되었으며 현재의 학회지는 2003년에 등재후보지, 2005년에 등재지가 되었다. 또 1988년 한국문화역사지리연구회는 그 후 1992년에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로 명칭을 바꾸고 학회지「문화역사지리」를 1989년에 발간하고 2003년 등재후보지, 2005년 등재지가 되었으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는 1991년 창립해 1992년 학회지「지리·환경교육」을 출간한 후 학회지명을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로 바꾸고 2003년에 등재후보지에, 2005년에 등재지로 되었다. 한국지역지리학회는 1995년 창립되어 1995년 창간호 「한국지역지리학회지」를 발간한 후 2001년 등재후보지, 2003년에 등재지가 되었고, 한국경제지리학회와 한국도시지리학회는 각각 1997년에 창립해 1998년부터 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를 발간했고 각각 2003년에 등재후보지, 2005년에 등재지가 되었다.
- 6) 지리학의 분류에서 도시지리학은 계통지리학에 속하지만



- 엄격히 말하면 도시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지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고 모두 도시지리학의 논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창간호 이후 2010년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수는 모두 262편으로 이 가운데 33.2%인 87편이 도시지리학과 관련된 논문이라고 판단했다.
- 7) 1971~1975년, 2001~2005년 사이에 「地理學評論」은 지리학 이외 분야에서 전기는 9.2~16.8%, 후기는 23.2~36.3%를 인용했다(Abe, 2007, 438).
  - 8) 일본의 「地理學評論」, 「人文地理」, 「經濟地理學年報」의 1971~1975년과 2001~2005년 사이의 평균 인용문헌수는 전기에 8.5~11.0개, 후기에는 19.0~25.1개였다(Abe, 2007, 438).
  - 9) 박삼옥의 지도학생이 인용한 문헌수는 58편, 이기석은 20편, 이희연·남영우는 각각 13편 등이다.
  - 10) 이러한 경우 주요 저자간의 수치가 분석에서 제거되는 경우가 있다(Han, 2010, 324).
  - 11) 우리나라 지리학 발달의 시기별 다차원척도법의 적용은 관측 케이스가 너무 적어 분석이 불가능했다.
  - 12) 인문지리학 분야 총 게재논문수가 516편으로 저자 수는 300명으로 평균 1.7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에 평균 이상 게재한 연구물에 대해 분석을 했다.
  - 13) 다차원척도에 동원된 차원의 수가 적절하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값으로 대상들 간의 측정된 거리가 지도상에 얼마나 많이 반영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 14) 각 상관계수의 값을 t분포 검정하면  $t=11.480 \sim 14.301 > 99\%=2.368$ 의 유의수준이다.
- 참고문헌**
- Abe, K., 2007, **On the identity of human geography: Focusing on the results of urban geography studies in Japan**, *Japanese Journal of Human Geography*, 59, 432-446. (in Japanese with English abstract)
- Baik, Seonhae, 2006, The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Korean human geography, *Japanese Journal of Human Geography*, 58, 572-587.
- Bunge, W., 1961, The structure of contemporary American geographic research, *The Professional Geographer*, 13, 19-23.
- Haggett, P., 1972, *Geography: A Modern Synthesis*, Harper & Row, New York.
- Han, Ju-Seong, 2001,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and spatial networks in *Daedeok* science town as locality, Kore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7, 35-5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Han, Ju-Seong, 2002, Regional changes of cultural industry in 'Jungwon culture region' and their important,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5, 25-4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Han, Ju-Seong, 2007,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 geography framework during fifty years (1956-2005),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0, 355-37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Han, Ju-Seong, 2010, *Geography of Transportation*, Hanul, Seoul (한주성, 2010, 교통지리학의 이해, 한울 아카데미). (in Korean)
- Jessop, B., Brenner, N. and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 389-401.
- Koo, Yangmi, 2008, **The structu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actor networks of the industries for the elderly: Based on the social network analysis**, *Journal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3, 526-54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oo, Yangmi, 2010, Agglomeration patterns of advertising industries and spatial networks of advertisement production, *Journal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5, 256-27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Lee, Hee Yeon and Kim, Hong Joo, 2006a, **The transformation of the spatial structure by commuting flows in the capital region using network analysis, 1980-2000**, *Journal of the Korea Planners Association*, 41(1), 133-15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Lee, Hee Yeon and Kim, Hong Joo, 2006b,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commuting network in Seoul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9, 91-11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English abstract)
- Lee, Yong-Gyun, 2006, **A study on the necessity of contextual approach for the understanding of paradigm shift in human geography**,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8, 91-10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Park, Sam Ock, 2005, Retrospects and prospects of sixty years of geographical stud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0, 770-78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Shimizu, A., 1998, A citation count based on the papers in the Geographical Review of Japan, Ser. A, *Geographical Review of Japan*, 71, 37-44. (in Japanese with English abstract)
- Sohn, D.W., 2002, *Social Network Analysis*, Gyeongmunsa, Seoul (손동원, 2002, 사회 네트워크 분석, 경문사, 서울). (in Korean)
- Sugiura, Y., 1986, Quantitative revolution and Statistics, Nogami, M. and Sugiura, Y., *Mathematical Geography Practice by Personal Computer*, Kokonshoin, Tokyo (杉浦芳夫, 1986, 計量革命と統計學, 野上道男・杉浦芳夫, パソコンによる数理地理学演習, 古今書院, 東京, 187-216). (in Japanese)
- Tomatsuri, Y., Numata, A., Magara, A. and Yasuhara, M., 2001, Discussion of Japanese key words listed in the Geographical Review of Japan(Vol. 67-72), *Geographical Review of Japan*, 74, 100-110. (in Japanese with English abstract)
- Ueno, K., 2012, The paper productive age in the Annals of the Japan Association of Economic Geographers, *Annals of the Japan Association of Economic Geographers*, 58, 138-142. (in Japanese)
- Yagasaki, N., 2005, The paper productive age in geography researchers, *Geographical Review of Japan*, 78, i-iii. (in Japanese)
- Yoshida, K., 2009, Analysis of social relationships for transferring farmland rights in a large-scale upland farming area, Hokkaido, *Geographical Review of Japan*, 82, 402-421. (in Japanese with English abstract)
- 교신: 韓柱成, 138-891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62 (잠실동, 트리지움☎) 328-1702 (이메일: jshan@chungbuk.ac.kr, 전화: 02-416-0316)
- Correspondence: Ju-Seong Han, (III-Zium Apart. Jamsildong) 328-1702, 62 Jamsil-ro, Songpa-gu, Seoul city, 138-891, Korea (e-mail: jshan@chungbuk.ac.kr, phone: 02-416-0316)
- 최초투고일 2012. 8. 16  
수정일 2012. 12. 10  
최종접수일 2012. 12. 14